

『한국식동검문화의 성립과 고조선 청동기문화』에 대한 토론 요지

조진선

(전남대학교 인류학과)

이양수 선생님께서는 삼한지역 청동기문화의 전개양상을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고조선 청동기 제작기술의 계보에 대하여 폭넓은 시각으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토론자도 동의하지만 그래도 토론자로서의 소임이 있기 때문에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이양수 선생님은 다뉴브문경의 비교를 통해 조양 십이대영자와 심양 정가와자 6512호묘 출토품은 제작기술적인 측면에서 계승성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나아가서 요서의 십이대영자문화를 고조선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찬동하기 힘들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요서지역에서는 전형적인 A군만 확인될 뿐 B군에 속하는 것이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연의 요서진출과 함께 다뉴브문화가 요동으로 이동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3가지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십이대영자와 정가와자 6512호묘 출토품이 계승성을 갖지 못하는 이유를 제작기술적인 측면에서 설명하였지만 토론자는 선 듯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보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십이대영자문화를 고조선으로 보는 것에 대하여 찬동하기 어려운 이유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연의 요서진출과 함께 다뉴브문화가 요동으로 이동했다고 하였는데, 연의 요서 진출 시기를 언제로 보고 있으며, 그 근거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2. 이양수 선생님은 청동기시대 삼한 고지, 또는 삼한 성립기의 고조선계 청동기를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중 중기의 유물로는 광주 역동, 춘천 우두동, 대전 비래동, 서천 오석리, 배천 대아리, 신평 선암리 등에서 출토된 이형요령식동검을 들고 있으며, 후기의 유물로는 연안 금곡동, 부여 송국리, 여수 적량동, 여수 월내동, 청동 예전동 등에서 확인된 전형요령식동검을 들고 있습니다. 또한 기원전 4세기대를 전후한 시기에는 한국식동검과 변형요령식동검을 함께 언급하였습니다. 변형요령식동검은 개천 용흥리, 평원 신송리, 재령 고산리, 평양 신성동, 김천 문당동 등의 출토품으로 이형요령식동검과 형태적으로 유사하여 구분이 쉽지 않지만 공반유물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동검의 변화는 이형요령식동검에서 전

형요령식동검으로 발전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이형요령식동검은 쌍방유형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가지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양수 선생님은 요령식동검이 기원전 770년경의 등장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당시 중국 동북지역에서는 전형요령식동검이 유행하고 있는데, 한반도에서는 왜 이형요령식동검이 유행하고, 후기에 가서야 전형요령식동검이 유행하게 되는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한반도의 이형요령식동검이 쌍방유형과 관련될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는 점과 관련해서 좀 더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와 같은 인식이 상당히 널리 퍼져 있는 것은 알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비파형동검의 한반도 발생설로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이형이 전형보다 앞선 형식이라면 중국 동북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의 상황을 상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후기는 전국시대가 시작하는 기원전 453년경부터로 보고 있는데, 이 시기가 되면 중국 동북지역에서는 정가와자 6512호묘나 남동구 출토품처럼 이전 형식(소위 전형)과는 약간 다른 형태의 비파형동검들이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후기에 갑자기 중국 동북지역에서 중기 단계에 유행한 전형비파형동검이 유행한다는 것이 선 듯 이해가지 않습니다.

둘째, 한반도에서 중기의 이형요령식동검과 후기, 구체적으로 기원전 4세기대를 전후한 시기의 변형요령식동검 사이의 형식학적 유사성은 또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익산 오룡리 5-2호묘의 다뉴조문경은 중국 동북지역에서 출토된 엽맥문 조문경과는 문양 구성이 다른데, 이것이 익산지역에서 출토되게 된 맥락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4. 이양수 선생님께서는 청동기시대 말기가 되면 재지화된 동검이 출현하고 마한, 변한, 진한에 차이가 있다고 하면서 마한의 한국식동검은 요서지역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떨어져 있는 두 지역이 어떤 계기로 연관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부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요동지역에 있는 심양 정가와자 6512호묘로 대표되는 심양지역의 청동기문화는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5. 변한의 청동기로 창원 덕천리, 사천 이금동 출토품 등을 들고 있으며 이러한 것들이 여수 일대와 관련성이 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청동기문화가 변한의 형성에 어떤 역할을 했으며, 창원 다호리와 같은 늦은 시기의 청동기문화와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부연설명을 부탁드립니다.

6. 마지막으로 오늘 학술대회의 주제인 점토대토기문화와 청동기문화의 관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